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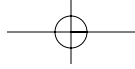


브레스치아의 아놀드 (Arnold of Brescia)

가톨릭교회의 세속화에 대해 최초로 항의를 발했던 인물 중 한 사람은 북부 이탈리아 브레스치아(Brescia)의 수도원장이었던 아놀드(Arnold of Brescia, 1100-1155)였다. 교회의 부패가 13세기 이후 더욱 심화되지만 그가 이미 11세기에 교회의 세속화를 비판하고 초대교회적 이상을 제시하면서 교회의 개혁과 정화를 주장한 일은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아놀드가 주창했던 개혁정신으로 볼 때 그의 정신적 후계자가 피터 왈도였다. 왈도(1140-1217)의 아놀드와 접촉 여부와 상관없이 왈도는 아놀드의 개혁정신을 정신적으로 계승했다고 할 수 있다.

아놀드는 두 가지 점에 대해 개혁을 주장하고 쇄신을 요구했다. 첫째는 교회의 세속 지배를 반대했다는 점이다. 교회가 부패했다는 말은 교회 지도자들이 부패했다는 의미였고, 교회 지도자들이 부패했다고 말할 때 이 말은 직접적으로 성직자들이 부패했다는 의미였다. 아놀드는 교회성직자들의 부덕은 교회가 세속의 영역까지 지배하고자 했던 권력에의 욕망에 있다고 보았다. 이것은 교회와 성직자들의 세속화를 가져온 주된 원인으로 인식한 것이다. 그래서 아놀드는 교회가 세속을 지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것이다.

아놀드는 또 교회의 사도적 청빈(apostolic poverty by the church)을 주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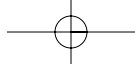


했다. 성직자나 교회는 세속 재물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었다. 그는 교회의 세속화를 막기 위해서는 교회는 세속 권력과 모든 재산을 국가에 돌려주고 초대교회의 소박한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보았다. 교회의 재정적 풍요가 성직자의 도덕적 타락을 가속화 시킨 사례를 고려한다면 아놀드의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이 점은 한국의 현실에서도 동일하다.

실제적으로 물질적 부는 신앙행위와 무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추구하면 그것을 신뢰하게 되고, 그것에 마음에 두게 되면 결국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런 그의 확신은 부자청년에 관한 비유(막10:17-31, 마19:16-30, 눅18:18-30)에 근거하고 있었다. 한 부자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네가 계명을 지키라”고 했다.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은 “그 계명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부자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점을 보시고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one thing you lack)고 하시고는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고 대답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부자청년에게 있어서 물질적 부유가 구원을 방해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 계셨다. 그래서 아놀드는 부의 축적을 반대하고, 교회는 초대교회의 청빈함으로 돌아가야 하고, 교회와 성직자는 부와 재산을 회피해야 한다고 가르친 것이다.

이 두 가지 가르침은 당시로서는 매우 획기적인 가르침이었다. 그것은 결국 우리 마음 속에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는 세속권력에 대한 탐욕과 소유에 대한 탐욕이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세속을 버릴 때 교회가 쇠신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아놀드의 주장은 정당했고 상당한 추종자들이 생겨났다. 그러나 당시 교회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주장이었다. 그는 당시 교황 이노센트 2세(Innocent II, 1130-1143)에 의해 소집된 제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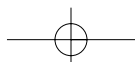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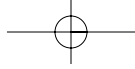


차 라테란회의(The Second Lateran council, 1138)에서 정죄당하고, 교황에 의해 이탈리아에서 추방되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놀드는 보다 과격하고 급진적인 경향을 띄게 된다. 파리로 이주한 그는 피터 아벨라드(Peter Abelard, 1079-1142) 문하에서 수학 하며, 상스교회회의(Sens, 1141)에서 아벨라드를 변호하기도 했다. 익히 알려진 바처럼 스콜라철학자인 아벨라드는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추구했던 인물이었는데, 삼위일체에 대한 그의 견해가 당시 교회와는 달랐다. 이 일 때문에 아벨라드는 상스교회회의에서 심문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중세의 양심이라고 칭송을 받았던 성버나드(St Bernard of Clairvaux, 1090-1153)도 아벨라드를 심하게 공격했다. 삼위일체에 대한 견해차 때문이었다. 아마도 아벨라드가 엘로이즈를 사랑했던 염문도 버나드의 불신을 샀던 또 다른 이유였을 것이다. 아벨라드를 변호했던 아놀드 또한 버나드의 공격을 받았는데, 버나드는 아놀드를 “양기죽을 쓴 또 한 마리의 포효하는 이리”라고 질책했다. 상스교회 회의에서 아벨라드와 함께 정죄된 아놀드는 외단 수도원에서 살도록 거주제한을 받게 되었다.

얼마 후 아놀드는 파리에서 다시 가르치기를 시작했으나 프랑스에서 추방되었고, 잠시 취리히에 거주했다. 그 후에는 보헤미아로 옮겨가 살기도 했다. 1145년에는 교황과 화해했으나 이것도 잠시였다. 곧 그는 과격한 개혁운동가로 변신했다. 그는 다시 로마에 와서 교황권을 부정하고 이를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아놀드는 교황의 현세적 지배권을 제거하고 로마에 새로운 사회를 구성하고자 했던 정치집단에 가담하였다. 교황이 제2차 십자군 원정을 위한 설교여행을 간 틈을 타 권력을 잡았고, 아놀드는 교회의 간섭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세속 정부의 지도자가 된 것이다. 이들은 교황으로부터 독립된 의회를 구성하고 조직을 갖추었다. 아놀드는 로마가 고대 로마처럼 강력한 세속권력을 지닌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기를 추종하는 자들과 함께 교황의 세속 황제 승인





관례를 반대하고, 콘스탄틴 기증서도 믿을 수 없는 의혹의 문서라는 점을 주장하며 당시 독일의 왕이자 로마황제였던 프레드리히 1세(c. 1122-1190)에 항의했다. 이런 주장 배경에는 교회의 국가 지배를 거부하는 정신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 정치집단은 나름대로 변화를 시도했으나 1152년 선거에서 패배했다. 아놀드는 정죄를 받았고, 로마에서 추방되었다.

교황 프레드리히 1세는 그를 체포하고 로마로 송환했다. 사형은 피할 수 없었다. 그의 행위는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었다. 정치적인 모반에 해당했다. 결국 아놀드는 1155년 화형을 당했고 그를 태운 재는 티베르강에 버려졌다. 이 아놀드로부터 연원한 운동 집단을 아놀드주의자들(Arnoldists)라고 부른다.

아놀드는 가톨릭교회의 속화에 반대하고 교회의 국가지배 반대와 사도적 청빈을 주창한 일은 교회 개혁에 속한다. 후에 그가 과격한 개혁을 시도하고 정치 집단에 연계된 일은 불행한 발전이었지만 그가 사도적 청빈을 강조한 일이나, 교계제도와 그 권력을 반대한 일은 정당한 개혁의 시도였다. 그가 세속적 부를 소지한 성직자가 집례하는 성례는 무가치하다고 주장했던 것은 사도적 청빈 사상을 강조한 탓이었을 것이다.

아놀드가 처형된 후 얼마 못되어 동부 프랑스에서는 청빈을 강조하는 또 다른 인물이 등장했는데, 그가 피터 왈도였다.

